

“내일 없는 살얼음 승부... 그래도 가을야구는 즐거워”

KIA 3년 연속 진출

누구보다 '호랑이 군단'의 승리가 간절했던 한승혁이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섰다. 5위로 와일드카드에 진출한 만큼 무조건 이겨야 2차전을 치를 수 있고, 두 번째 경기까지 승리해야 준플레이오프 티켓까지 바라볼 수 있던 '벼랑 끝 승부'.

내일 없는 치열한 승부를 위해 KIA는 고심 끝에 30명의 선수를 꾸려 결전의 장소로 왔다. 하지만 고척돔에 모습을 드러낸 선수는 모두 31명이었다.

선발 대란 속 지난 10일 한화전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5위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승혁이 '엔트리에는 없는 1인'이었다.

팀에서 가장 빠른 공을 가진 선수이고, 마지막 등판에서 좋은 피칭까지 선보였지만 30인의 명단에는 빠졌다. '넥센 약세'와 '더 큰 무대를 위한 계산'이 맞물린 선택이었다.

한승혁은 최근 3년 넥센에 약한 모습이었다. 8.2이닝을 소화하면서 14.53의 평균자책점을 보였고, 고척에서는 4.1이닝 동안 14실점을 하면서 평균자책점이 29.10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KIA는 다음 무대까지 내다보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준비했다. KIA가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경우 한승혁을 1차전 선발로 내세울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한승혁은 16일 경기 전 "이런 경기에서 던지고 싶은 마음은 선수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도전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양)현종이 형이 책임감 가지고 잘할 것 같다. 우리 타자, 야수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 래야 기회가 넘어온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승혁에게는 아쉬움의 무대였지만, 고척돔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다.

정규시즌에서 최고령 세이브(41세 11개월 9일), 3998일 만의 선발승 등을 만들어 올 시즌 자신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왔던 '만행' 임창용은 이번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13번째 가을 잔치를 치렀다. 24년 차 임창용은 해외에 진출해 있던 6시즌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18시즌을 보냈다. 임창용은 "내가 운이 좋은 선수다"고 웃으면서 자신의 13번째 가을을 맞았다.

2016년 LG 트윈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적'으로 만났던 정성훈은 올 시즌 고향으로 돌아와 '야수 최고참'으로 또 다른 무대를 찾았다.



임창용

한국에서 13번째 "나는 운이 좋은 선수"

또 정성훈에게는 지난 2002년 준플레이오프 이후 16년 만에 다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치른 포스트 시즌이다. 정성훈은 "보통 시즌 같다. 평소와 같은 기분이다"며 돌아온 친정에서의 가을을 즐겼다. 2016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에서 1.2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했던 윤석민은 아예 수출



정성훈

16년만에 친정서 가을잔치 "평소처럼 즐겨"

이후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건너뛰었지만, 5위를 확정하는 세이브와 함께 고척으로 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엔트리 '막장'을 뒀던 임기준은 올 시즌에는 필승조가 되어 당당히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2017 한국시리즈 승리투수 팻민은 부침 많은 올 시즌을 보낸 뒤 선발이 아닌 볼펜 투수로 한국에서의 두 번째 가을을 보냈다.



한승혁

넥센에 약해 엔트리 제외 "나에게도 기회"

프로 입단 후 처음 포스트 시즌 열기를 느낀 이들도 있었다. 올 시즌 볼펜의 마당쇠로 활약한 황인준과 함께 투수 이민우, 문경찬, 박준표에게는 첫 가을 잔치. 내야수 황윤호와 내야수 유민상, 박준태도 밝은 표정으로 첫 포스트 시즌 현장을 누볐다. 특히 박준표는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전역 한 뒤



팻민

선발서 볼펜으로 "지나해엔 KS 승리투수"

13일 1군 등판에 이어 포스트 시즌 현장까지 찾으면서 바쁜 가을을 보냈다. 문경찬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엔트리에 합류해서 기뻐다. 열심히 한 부분을 인정해주신 것 같지만 많이 부족했다. 다음에는 더 당당하게 엔트리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척=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김종국 "여름에 잘하지"... 나지완 "PO 때 잘하려고요"

▲플레이오프 하려고 남겨놨어요 = 시즌이 끝난 게 아쉬운 나지완이다. 아쉬웠던 여름을 보냈던 나지완은 최근 10경기에서 0.452의 타율을 찍는 등 9월 이후 치른 30경기에서 74타수 27안타로 0.365의 타율을 기록했다. 7개의 홈런과 함께 20타점도 기록했다. 나지완은 1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한 달만 더 있었으면 3할을 찍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했다. "여름에 잘하지 그랬

나"는 김종국 코치의 핀잔에 나지완은 "플레이오프 하려고 남겨뒀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날 '강한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나지완은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가을 기세를 이어갔다.

▲경기를 잘해야죠 = 김윤동에게 미디어 데이는 등판 때보다 더 긴장된 무대였다. 김윤동은 지난 15일 열린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 행

사에 안치홍과 함께 KIA를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했다.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며 첫 미디어데이 참가 소감을 밝힌 김윤동은 "(말이 아니라) 경기를 잘해야죠"라고 마운드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 16일 와일드카드 경기에 앞서 취재진과 자리를 갖은 김기태 감독. 라인

업과 이명기의 컨디션 등에 답을 하던 김 감독이 "답변을 안 하겠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김 감독이 받은 질문은 "고척에서 안 좋았던 경기 많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였다. KIA는 올 시즌 김재현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는 등 고척에서 3패 5승으로 부진했다. 김 감독은 "안 좋은 것은 생각 안 하기 위해서 답변 안 하겠다(웃음). 좋은

점만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슬슬 시작해야죠 = 올 시즌 선발로 첫 시즌을 보낸 한승혁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넥센에 약했고,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내정되면서 벤치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 것이다. 한승혁은 16일 취재진으로부터 "평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는데 한화전에 대비한 생각을 하고 있나?"는 질문을 받았다. 한승혁은 "오늘 이기면 슬슬 시작하겠다"고 웃으며 팀 승리를 간절히 빌었다. /고척=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학범 감독, 2020올림픽 유망주 찾기

오늘부터 파주NFC서 대학생 축구선수 테스트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지도한 김학범(58)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유망주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김학범 감독이 1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테스트를 실시한다"라며 "공식 대표팀 소집은 아니다.

대학생 선수 가운데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1차 훈련(17~20일)에 24명을 먼저 호출하고, 22~25일까지 이어지는 2차 훈련에는 1차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과 전국 체전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눈에 띄는 실력을 보

여준 선수들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1차 훈련에 나서는 24명의 선수 중에는 오산 소속의 수비수 김주성이 유일한 고등학교생으로 합류하고, 신태웅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신재원(고려대)도 소집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 지난해 U-20 월드컵에 나섰던 김승우와 하승운(이상 연세대)도 호출을 받았다. 김 감독은 1차 훈련의 결과를 토대로 2차 훈련에 나설 선수들을 다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은 내년 3월 아시아지역 1차 예선을 치르고, 2020년 1월 최종 예선을 겸한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을 통해 본선 진출권 3팀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경찰청 "축구·야구 선수 선발계획 없다"

구단 해체 공식화 내년 리그 참가 어려울 듯... 축구연맹 철회 요청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화 경찰 야구단의 해체를 공식화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경찰청이 어제(15일) 공문을 보내와 '공고한 대로' 올해부터 아산 선수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당장 올해부터 프로야구 경찰야구단과 프로축구 신규 선수(의경) 선발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 사실을 뒤늦게 공식 통보한 것이다.

이는 프로축구연맹이 아산 선수의 모집 중단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협약을 무시한 것에 반발하자 경찰청이 뒤늦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연맹은 지난 2017년 1월 경찰대학, 아산시 등 3자가 체결한 아산 구단 운영 협약서에서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약을

3차 협의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는 사전 협의의 규정을 넣었다. 경찰청은 또 전날 오후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과 장운호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회의를 한 자리에서도 선수 모집 중단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에 '선수 총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청이 선수 선발을 중단하면 아산은 전역자가 발생하는 내년 3월 단 14명의 선수만 남게 된다. 리그 최소 요건인 20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부터 K리그2(2부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프로야구 퓨처스(2군) 리그에 참가 중인 경찰 야구단 역시 내년부터 정상적인 리그 참가가 어렵다. 경찰청이 선수를 뽑지 않으면 경찰 야구단에 포수 2명, 외야수 3명, 내야수 6명, 투수 9명 등 20명 밖에 남지 않아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 /연합뉴스